쓰레기로의 전회 가능성과 생태적 상상력
: 영화 <월-E>와 <굴뚝마을 푸펠>을 중심으로

임보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서론

이 글은 영화 <월-E>(2008)와 <굴뚝마을의 푸펠>(2020)에서 나타나는 쓰레기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이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상상력의 작용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 상상력을 생태적 상상력으로 이해하여 '쓰레기로의 전회' 가능성을 탐문하고자 한다.

두 영화의 제목인 월-E와 푸펠은 주인공의 이름이고, 이들은 쓰레기를 의인화한 캐릭터이다. 이 캐릭터는 서사 전개 과정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속성을 함께 나타내면서,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할 가능성을 주제화하는 데 기여한다. 쓰레기 과잉이 초래한 생태 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두 영화에서 쓰레기와 인간의 이질적 관계 맺음은 이 위기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 글은 쓰레기를 인간의 삶에서 배제해온 기존의 사유와 다른 방식으로 쓰레기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래서 쓰레기를 인간의 삶의 위기를 진단할 수 있는 통로로 이해하여 삶의 경계 안으로 이끌어오려고 한다. 이에 따라 인간과 쓰레기의 경계를 허무는 상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 이론과 '물질적 전회'의 개념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2. 본론

바슐라르는 대상의 물질성에 주목하여 이 물질(4원소:)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물질적 이미지로 보고, 이 이미지를 이상적으로 변형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으로 보았다. 물질적 상상력은 물질이 상상 주체와 얽히는 과정에서 물질뿐 아니라 그 물질과 관계 맺는 상상 주체를 변형시킨다. 이것은 물질의 관계를 지속적인 내부작용(intra-action)을 통해 설명하는 '물질적 전회'와 비교될 수 있다. 물론 물질적 상상력에서는 물질에 대한 상상 주체의 코기토가 중시된다. 그럼에도 상상 주체는 물질을 일방적으로 인간의 앎을 위한 수동적 대상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경험한다. 때문에 물질적 상상력은 물질적 전회에서 물질을 상호구성되는 존재로 이해하는 사유와 상통한다. 따라서 '물질적 전회'나 바슐라르의 "존재의 전환" 가스통 바슐라르, 불의 정신분석, (김병욱 옮김), 2007, 33쪽.
의 개념을 통해 사유하면, '쓰레기로의 전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쓰레기로의 전회'는 쓰레기와 인간관계를 사유하는 것만이 쓰레기의 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이며 쓰레기와 관계 맺음을 상상력의 관점에서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다.

각 절에서는 두 영화에서 쓰레기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분석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쓰레기의 이미지와 함께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불의 이미지에 주목하여,쓰레기와 불의 이미지가 결합하는 양상을 통해 쓰레기의 이미지 변화를 추적하였다.

1) 온기의 이미지와 춤추기의 상상력 : <월-E>

<월-E>에서는 지구를 강조하기 위해 지구와 대비되는 우주라는 공간을 설정한다. 불의 이미지는 월-E(Waste Allocation Load Lifter Earth-Class)와 식물탐사로봇 이브(Extra-terrestrial Vegetation Evaluator))의 러브스토리가 이루어지는 지구에서 출현한다.



첫 번째 불의 이미지는 대형 선박 폐기물이 불에 휩싸이는 장면에서 나타난다(그림1). 선박 주변이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월-E는 천천히 이브에게 다가간다. 월-E는 손을 뻗어 이브의 손에 닿고자 할 때, 손의 이미지는 불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두 번째 불의 이미지는 월-E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라이터에서 나타난다(그림2). 이브가 지포 라이터를 꺼내서 켜는 장면에서 불꽃의 이미지는 집 내부를 두른 색색의 조명과 어우러진다. 그리고 이어 월-E가 이브에게 자신이 즐겨보는 뮤지컬 영화 <헬로, 돌리>를 보여준다(그림3). 이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랑은 한순간에 빠지는 것"으로 영화 속 두 연인은 이 노래를 부르며 손을 잡고 춤을 춘다. 불의 이미지는 손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온기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우주에서는 온기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황폐해진 지구를 떠나 우주 여객선 액시엄(Axiom)에서 살아간다. 첨단 과학기술로 작동되는 우주선에서 사람들은 기계와 소통하고 기계적 반응에만 익숙해져 살아간다(그림4). 그들에게 닿는 모든 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떠한 온기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공간으로 월-E와 풀 한 포기가 들어온 이후부터 온기의 이미지가 생성된다.



월-E는 쓰레기를 수집하다가 버려진 냉장고 안에서 우연히 풀 한 포기를 발견한다(그림5). 이 풀은 우주 여객선을 지구로 귀환하게 하는 열쇠이지만 BnL회사는 사람들이 우주선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 파일럿 오토에게 생명체가 발견되는 즉시 제거할 것을 프로그래밍해 두었다.



월-E와 이브는 풀을 지키기 위해 오토와 추격전을 이어가고, 이 과정에서 우주선 밖으로 사출된다. 그들은 두 손을 맞잡으면서 배경음악에 맞춰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주 유영을 한다(그림6). 여객선 내부의 사람들은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들에게도 월-E와 이브는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그림7). 이 장면은 월-E가 영화 <헬로, 돌리> 속 연인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모습을 지켜봤던 것처럼(그림8), 사람들은 월-E와 이브가 함께 춤을 추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형상화된다.

헤클과 몰로이, 월-E와 이브가 손을 잡을 때의 열기는 상승의 이미지로 자유롭고 가벼운 움직임과 연결되어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동적 상상력을 끌어낸다(그림9, 그림10).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면서 현 체제에 저항하며 액시엄 호가 지구로 귀환할 수 있도록 선장을 도와 지구로 귀환한다.

2) 별빛의 이미지와 친구 되기의 상상력 : <굴뚝마을의 푸펠>

영화 <굴뚝마을의 푸펠>은 쓰레기에서 태어난 쓰레기 인간과 루비치가 친구가 되어 함께 하늘의 별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이들의 여정에서 쓰레기의 이미지는 별빛의 이미지로 변형되고, 이 과정에서 친구 되기의 상상력이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된다.

영화의 배경인 굴뚝 마을은 검은 연기나 바다 괴물로 가득 차 있다. 이 쓰레기들은 250년 동안 마을을 지배해온 가문인 레터의 배후인들이 마을을 세상과 고립시켜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날마다 석탄을 태워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피어오르게 했다. 그리고 바다 너머로 가지 못하도록 낡은 잠수함을 바닷속에 숨겨 바다 괴물이 존재한다는 거짓말로 공포심을 조장했다. 하지만 쓰레기 인간이 탄생하여 마을에 등장하면서부터 마을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핼러윈 데이에 쓰레기 산에서 탄생한 쓰레기 인간은, 쓰레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쓰레기로써 이 세상을 회복시킬 가능성의 힘을 보여준다. 이 가능성은 쓰레기 인간이 외톨이 루비치와 만난 이후부터 나타나는 불의 이미지에서 확인된다. 이 이미지는 그들이 만나는 장소인 쓰레기 소각장(그림11)에서 시작하여, 망울구슬(그림12), 화약(그림13)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



영쓰레기 인간은 쓰레기 차에 태워져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게 된다. 루비치는 쓰레기 인간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 차를 쫓아간다. 불길로 가득 찬 소각장으로 가는 길에서 루비치와 쓰레기 인간은 서로 도우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소각장을 빠져나온다.

소각장에서 지속해서 출현하는 불의 이미지들은 사람과 쓰레기가 공존하는 상상을 끌어낸다. 이 상상은 불을 다루면서 원물질에서 또 다른 물질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연금술의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연금술의 작업 과정에서는 상반되는 것들이 일치됨으로써,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이러한 사유는 루비치와 쓰레기 인간의 관계 변화를 가능하게 하여, 이후 이들이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서사 전개에 힘을 부여한다.

소각장을 지났을 때 외톨이였던 루비치는 갑자기 쓰레기 인간에게 친구가 돼달라고 부탁한다. 쓰레기 인간은 친구가 뭐냐고 물었고, 루비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답한다. 쓰레기 인간이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자 쓰레기 인간에게 핼러윈에 태어난 푸펠이라는 의미에서 핼러윈 푸펠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루비치와 푸펠이 서로 '친구 되기'를 선택한 뒤 그들은 통치 가문의 배후 인물들이 괴물이라고 속였던 낡은 잠수함을 바다 위로 끌어당겨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억압했던 공포의 실체를 보도록 한다. 그리고 함께 검은 연기를 폭파하기 위해 화약을 찾아 탄광으로 내려간다.



루비치와 푸펠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괴물로 불렸던 낡은 배에 열기구를 달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화약에 불을 붙인다(그림9). 화약이 터지면서 수많은 불꽃이 별처럼 하늘을 수놓고, 곧이어 검은 연기가 걷히면서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불꽃처럼 반짝인다(그림10). 불꽃과 별빛의 이미지가 결합하는 장면은 긴 쇼트로 지속된다. 다음 장면에서는 푸펠이 루비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된다(그림12).

그들의 우정은 쓰레기로 여겨졌던 푸펠이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로 창조될 수 있게 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만들어진 푸펠이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이는 장면은 쓰레기가 굴뚝마을 사람들에게 이 지상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을 끌어낸다.

3. 결론

이상으로 이 글은 불의 이미지의 특성을 경유하여 쓰레기의 이미지를 살피고자 했다. 쓰레기의 이미지가 변화될 수 있다는 상상력을 밝혀내려는 기획은 인간 본성의 중요한 힘인 상상력을 회복하여 미래로 열린 생태학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쓰레기와 인간이 조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당위적 사유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상상력을 찾고자, 이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이미지들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영화 <월-E>와 <굴뚝마을의 푸펠>에서 쓰레기의 이미지에 천착하여 쓰레기에 대한 수사학을 모색하려는 이 글의 시도는 우리에게 쓰레기의 문제를 되비쳐주며 끊임없이 쓰레기 문제에 다가갈 것을 요청하려는 작업이다. 급진적 생태학자인 티머시 모턴(Timothy Morton)은 인간과 자연의 이분적 사유를 비판하면서 비인간적 존재들과의 연대의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래서 자연을 인간중심주의 개념으로 보고 자연이 등장하지 않는 생태계를 주장했다. 이 글은 이러한 사유에 도움을 얻어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현재 지구의 반을 뒤덮은 쓰레기가 주체인 생태학을 상상해보고자 했다. 인간과 쓰레기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쓰레기에 대한 상상력이 비현실적일지라도, 이 활동이 생태파괴로 인간종의 소멸을 언급해야 하는 현 상황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